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4개 한인 본당 합동 야외 미사 취소
합동 야외 미사는 날씨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 2019년 성경 공부 - 마르코 복음 여정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강의실 교재비 : \$30
- 새 성모회장 선출
새 성모회장 선출이 5월 12일(일)에 있습니다. 추천바랍니다.
- 제1회 남부 뉴저지 지역 청소년 어울림 축제
일시 : 5월 18일(토) 오후 6시부터
장소 :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카톨릭 센터
이 행사는 '체리힐 천주 교회' 후원과 '남부 뉴저지 통합 한국학교' 기획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감성 증진과 또래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 행사를 통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힐링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성모님 꽃 봉헌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Catholic Strong Campaign
성당 발전 모금 활동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금액 합계 : \$32,200.00>
신부님, 권혜원, 최영숙, 김연자, 김재숙, 이경실, 이상민, 김광대, 이보월, 김성문, 황선동, 안우풍, 박영희, 윤모니카, 송미라
- 2019년 성지 순례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
장소 : 터키, 그리스 13일 날짜 : 9월 9일(월)
비용 : 3,500불 가량 문의 : 윤모니카 회장님(254-289-1682)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구역 모임
글로리아 구역 : 5월 16일(목) 오후 7시에 비원에서 있습니다. <이경실 스텔라 자매님, 이순덕 안나 자매님 주관>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 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알립니다!

- * 이번달 상품권 판매는 **로사리아** 구역입니다.
- * 이번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비오** 구역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 담당은 **마리아** 구역입니다.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Mission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평협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화요일) : 오후 8시
(목요일) : 낮 12시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든지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단체모임 안내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평협회 : 수시 모임, 수시 공지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당성가 | 135번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 |
| 제1독서 | 사도행전 5, 27ㄴ-32. 40ㄴ-41 |
| 화답송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 제2독서 | 요한 묵시록 5, 11-14 |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
| 복음 | † 요한 21, 1-19 |
| 봉헌성가 | 215번 영원하신 성부 |
| 성체성가 | 197번 나그네 양식이요 |
| 퇴장성가 | 245번 맑은 하늘 오월은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 주 일 | 부활 제3주일 5월 5일 | 부활 제4주일 5월 12일 | 부활 제5주일 5월 19일 |
|------|------------------|-------------------|-------------------|
| 제1독서 | 신선희 카타리나 | 하국일 암브로시오 | 권명자 율리안나 |
| 제2독서 | 김정숙 이사벨라 | 김재숙 제노베파 | 김희동 프란치스코 |
| 봉헌자 | 박영희, 김충수 | 배향숙, 배진형 | 최영숙, 정의환 |

오늘의 묵상

부모가 되어 보아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들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누군가처럼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누군가를 알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앞드려 기어 다니던 아기가 걸음을 걷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두 발로 걷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제대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분과 똑같이 십자가를 짊어져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버리고 순종해 보지 않으면 순종하시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만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습니 다. 그러나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가에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노련한 어부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수난을 당하실 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인지 지금은 매우 겸손합니다. 어부였던 그가 그물질을 하는데 누구에게나 순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무엇보다 순종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순종을 통하여 순종의 달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의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그만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전삼용 요셉 신부)

우리들의 기도

평화의 기도

-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이해 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 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는 베풀어야 받을 수 있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으며,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주일정성

< 4월 28일(일) >

| | | |
|--------------|-----------------|-----------|
| 봉헌금 | \$320.00 | |
| 교무금 | \$120.00 | 윤모니카(3,4) |
| Total | \$440.00 | |